

LS전선, 기술탈취 의혹에… 대한전선 “독점기업 과도한 견제”

대한전선, 해저케이블 탈취 공장 “공장 레이아웃 등 핵심 기술이나 기술탈취 하거나 활용한 바 없어” 무혐의 밝혀지면 민형사상 조치 예정

LS전선이 기술탈취를 주장하는 가운데 대한전선이 반박문을 내놨다.

15일 대한전선은 입장문을 통해 LS전선의 기술을 탈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LS전선은 대한전선의 기술탈취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사실일 경우 국내외에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우선 대한전선 측은 해저케이블 공장 레이아웃은 핵심 기술이 아님을 설명했다. 선형구조인 케이블 제품은 중심(도체)에서 바깥(절연체 및 외장 등)으로 공정이 진행되며, 이 순서를 고려해 설비를 배치한다. 해저케이블 설비 역시 동일하며, 생산 CAPA, 공장 부지의 형태 및 크기, 부두 위치 등을 고려해 레이아웃을 결정하게 된다. 때문에 공장 설비 레이아웃은 핵심 기술일 수 없으며, 이런 이유에서 해외 공장들은 경쟁사의 공장 견학을 허락할 뿐 아니라 홈페이지 등에 설비 배치를 공개하는 경우도 있다는 설명이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공장의 레이아웃



LS전선 동해사업장 전경.

/LS전선



대한전선 당진공장 전경.

/대한전선

또한 해외 설비 업체로부터 소정의 비용을 지불하고 구입할 수 있을 정도로 핵심적인 기술 사항이 아니다”라며 “기술탈취의 목적으로 경쟁사의 레이아웃과 도면을 확보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전선은 LS전선의 영업비밀을 탈취하거나 활용한 바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대한전선은 수십년간 케이블을 제조하며 쌓아온 기술력 및 해저케이블에 대한 연구를 통해 자체 기술력으로 공장을 건설했다”라며 “대한전선은 위에 언급한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해 수십 번의 내부 검토

및 연구를 거쳐 최종 레이아웃을 결정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1공장 1단계를 건설했다”고 설명했다.

2공장 역시 다양한 후보 부지 별 레이아웃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 과정을 통해 최적의 부지를 선정할 후 최종적으로 유럽 최대 케이블 설비 업체인 M사로부터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받을 예정이다. 가운데중합건축사무소 경쟁입찰 방식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선정했다고 밝혔다. 가운데건축은 공장 건물의 공간을 설계하는 업체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공장 설계 경험이 있는 다수의 설계 업체 중, 정성·정

량 평가를 통해 선정했다”라며 “대한전선이 가운데건축에 먼저 연락해 수차례 설계를 요청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경쟁사의 계약 금액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대한전선은 케이블 설비 공급 경험이 있는 업체에 공정하게 입찰 참여 기회를 부여해 왔을 뿐 LS전선의 주장처럼 동일한 설비 제작 및 레이아웃을 요구한 바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한전선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한 독점기업의 과도한 견제는 중단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해저케이블 시장은 글로벌 전력망 산업에서 가장 장래가 유망한 분야이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민관이 협력하여 집중 육성해야 하는 산업”이라며 “국내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LS전선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대한전선의 시장 진입을 방해한다면, 해저케이블 및 해상풍력 산업에 대한 국가경쟁력이 약화될 뿐만 아니라 중국 등 해외업체로부터 우리 케이블 시장을 보호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

대한전선은 경찰 조사에 적극 임해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 소명할 예정이다. 혐의가 없다고 밝혀질 경우, LS전선에 민형사상의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KG모빌리티

‘액티언’ 사전계약 시작

KG모빌리티(이하 KGM)가 프로젝트명 ‘J120’으로 개발해 온 신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이름을 ‘액티언(ACTYON)’으로 확정하고 사전 예약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KGM은 오는 8월 출시 예정인 액티언의 디자인을 공개하고 사전 예약을 시작했다. 액티언은 세련되고 다이나믹한 쿠페 스타일의 도심형 SUV다.

차명 ‘액티언’은 KGM이 지난 2005년 세계 최초로 SUC(Sports Utility Coupe) 콘셉트로 선보인 1세대 모델에서 계승했다. 70년 역사를 지닌 정통 SUV 명가로서의 정통성을 있는다는 의미를 담았다.

1세대 액티언을 선보일 당시 이 이름은 젊음을 상징하는 ‘Action’과 ‘Young’의 합성어로 만들었다. 이를 통해 개성과 변화, 도전 등 역동적인 이미지를 표현했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액티언은 기존 의미에 ‘Act+Young’과 ‘Act+On’의 의미를 더했다. 젊게 행동하고 활동을 개시한다는 뜻으로 KGM의 새로운 시작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양성운 기자 ysw@

배달의민족, 수수료 9.8%로 인상… 소상공인 ‘속수무책’

시민단체, 수수료 인상 철회 촉구 일방적 약관변경에도 대응책 전무 배민 “인상률 44% 주장은 과장”

배달의민족이 중개 수수료를 3% 인상하자 윤석열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에 대한 적절성 논란까지 일고 있다. 플랫폼의 일방적인 약관 변경에도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의 대응책이 전무한 상황 속에서 아무런 대안이 없다는 주장이다.

15일 시민단체들이 오전 서울시 송파구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수수료 인상 규탄 및 온라인플랫폼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후에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의민족의 상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자영업자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의민족 중개수수료율 인상 철회를 촉구했다. /뉴스

생을 촉구하며 정부와 국회에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들의 독과점 규제를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배달의민족은 지난 10일 기존 6.8%이던 중개 수수료를 9.8%로 3%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상대 인상률로 따졌을 때 44%에 달하는 인상액으로, 단순 계

산으로 따지자면 과거 1만원의 음식을 판매했을 때 수수료를 680원 지불했다면 새롭게 바뀐 정책에 따라서는 980원을 지불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프로모션과 홍보비용, 자체 배달 이용시 드는 추가적인 비용까지 고려한다면 실질적으로 플랫폼에 지불하는 금액은 전체

판매 비용의 50%를 넘기기에 이른다.

배달의민족 측은 이번 인상과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이번 요금 개편에서는 중개이용료율 인상과 배달비 인하가 함께 적용됐다”며 “따라서 ‘당사가 입점 업주 중개이용료를 44% 인상했다’는 주장은 중개이용료율이 6.8%에서 9.8%로 3%p 변경되는 것만을 반영해 인상분을 커보이게 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시민단체 측에서는 “배달의민족이 설명하는 내용이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상에 따른 서비스 개선 및 배달 노동자와 업주에 대한 수혜 효과 미미 ▲플랫폼의 수수료 인상에 대한 업주들의 대응책 전무한 상황 등이 이번 사태의 핵심 문제라는 주장이다. /김서현 기자 seoh@



KG모빌리티 액티언 우측면.

LGU+

서울 지하철 9호선

LTE-R 구축 착수

LG유플러스는 이달 서울시 지하철 9호선 철도통합무선망(이하 LTE-R) 구축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15일 밝혔다.

LTE-R은 4세대 무선통신 기술인 LTE를 철도 환경에 최적화된 철도 통합 무선통신 시스템이다. 기관사, 관제실 등 열차를 운행하는데 참여하는 인력이 상호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든다. 기존 음성 통화를 위주로 이용됐던 무선통신기술과 달리 빠른 속도를 바탕으로 음성·영상·데이터 서비스가 가능하다. 특히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현재까지 서울시메트로 9호선의 LTE-R 구축 사업은 구간에 따라 총 3단계로 나뉘었다. LG유플러스는 1단계에 해당하는 개화역부터 신논현역 구간에 LTE-R 구축을 진행 중이다. 이어 2·3단계 사업 구간인 안주역부터 중앙보훈병원역 총 13개역사(약 14km) 구간에도 내년 11월까지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구남영 기자

SKT, 반려동물 진단 ‘엑스칼리버’ 북미 진출 KT, 지니 TV 실시간 자막 12개 국어로 확대

뉴온앤니키와 캐나다 지역 유통

SK텔레콤의 인공지능(AI) 기반 반려동물 진단 보조 솔루션이 북미 지역에 본격 진출한다.

SKT는 반려동물 의료장비업체 ‘뉴온앤니키’와 자사의 반려동물 진단 보조 솔루션인 ‘엑스칼리버’를 캐나다 지역에 유통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뉴온앤니키는 캐나다 지역 반려동물 의료장비업체 뉴온이미징과 방사선

장비 및 소프트웨어 제조업체 니키 헬스 솔루션이 지난해 10월 설립한 합작 회사다. SKT ‘엑스칼리버’는 뉴온앤니키의 수의 영상 소프트웨어 ‘스카이라인 PACS’에 연동되는 방식으로 캐나다 내 동물병원 100여곳에 다음달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상용 계약은 캐나다 토론토에서 손인혁 SKT GS AIX 담당과 마크 리틀, PJ 모하이어 뉴온앤니키 공동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됐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몽골어·러시아어 2종 추가

KT는 지니 TV의 실시간 채널 다국어 자막서비스를 기존 10개 국어에서 몽골어와 러시아어까지 2종을 추가한 총 12개 국어로 확대했다고 15일 밝혔다.

‘실시간 채널 다국어 자막서비스’는 한국어로 방송되는 TV 채널에서 시청자가 언어 설정을 통해 자막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서비스다.

KT 지니 TV는 기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필리핀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우즈베크어 10개 국가 언어에서 국내 체류 외국인 수요가 높은 몽골어, 러시아어를 추가해 총 12개의 언어로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19개 실시간 채널 중에서 해당 채널 사업자가 청각 장애인을 위한 자막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에만 이용할 수 있다. 이용을 원하는 시청자는 지니 TV 리모컨에 있는 채널 옵션(三) 버튼을 눌러 ‘자막 설정’ 메뉴로 이동해 ‘자막 방송 On/Off’를 선택하면 된다.

/구남영 기자